

한국대학생방일단 (초빙) 의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JENESYS 2022 의 일환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선발된 대학생 등을 초빙하여 ‘한일사회·문화의 상호이해 촉진 ~한일사회, 문화의 공통점, 차이점 및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 아래, 각종 시찰, 강연 청강, 학교방문, 동세대교류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한일 간의 상호 이해 촉진과 신뢰 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사전학습 (온라인) : 한국의 대학생 등 19 명

초빙 (오프라인) : 한국의 대학생 등 19 명

【방문지】

도쿄도 (東京都), 사이타마현 (埼玉県), 야마나시현 (山梨県), 치바현 (千葉県)

2. 일정

사전학습 (온라인) :

9 월 17 일 (토) 대학생 방한단 단원들과의 의견교환

10 월 15 일 (토) 방일 전 오리엔테이션

일본 현지 프로그램 :

10 월 24 일 (월) 하네다 공항 입국, 오리엔테이션

10 월 25 일 (화) 외무성 예방 및 강의 수강, 환영 오찬회, 주일 한국문화원 예방 및 강의 수강

10 월 26 일 (수) 사이타마현으로 이동, 고마신사 시찰 및 강의 청강
야마나시현으로 이동

10 월 27 일 (목) 아사카와 노리타카·타쿠미 형제 자료관 시찰
야마나시현립 리니어 견학센터 시찰, 도쿄도로 이동

10 월 28 일 (금) 간다외어대학 방문 및 교류

10 월 29 일 (토) 대학생 방한단 단원들과의 그룹별 프로젝트 준비 및 발표

10 월 30 일 (일) 하네다 공항 출국

3. 프로그램 기록사진 (방문지 : 도쿄도, 사이타마현, 야마나시현, 치바현)



10 월 25 일 【예방 · 강의】 외무성



10 월 25 일 【예방 · 강의】 주일한국문화원



10 월 26 일 【시찰 · 강의】 고마신사



10 월 27 일 【시찰】 아사카와 노리타카 · 타쿠미 형제 자료관



10 월 27 일 【시찰】 야마나시현립 리니어 견학센터



10 월 28 일 【학교방문】 간다외어대학



10 월 29 일 【교류】 대학생 방한단 단원들과의 그룹별 프로젝트 준비



10 월 29 일 【교류】 대학생 방한단 단원들과의 그룹별 프로젝트 발표

4. 참가자 소감 (발체)

◆ 한국 학생

국경과 코로나의 장벽을 뛰어넘어 방문한 일본은 진로에 대한 나의 시야를 더욱 크게 밝혀주었습니다. 4학년 되기까지 전공 공부만 해왔던 나에게 이번 방일 경험은 “더 큰 꿈을 가져봐” 라는 메시지를 심어주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크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열망이 생겼습니다.

◆ 한국 학생

이번 활동으로 막연히 “한일관계가 나쁘다” 라는 인식을 깰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일관계에 우호적인 일본인도 많고 한국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담아 덕담 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현지에서 보고 겪은 만큼 우리뿐만 아닌 일본 또한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한국 학생

젊은 세대의 폭발적인 상호 교류와 관심으로 인해, 오래 이어져왔던 양국 간의 갈등에도 어떠한 종착점이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다리가 끊기지 않고 후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5. 일본 측 소감 (발체)

◆ 간다외어대학 학생

나라는 다르지만 말이 통하면 서로에 대해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건가 하며 감동했습니다. 서로의 문화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이해가 있기도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끌리며 더 나은 한일관계를 맺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고마신사 관계자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본 신사의 유래와 역사를 안내해 왔는데, 일본사나 한국사, 또는 한일교류사에 있어서도 주류가 아니기 때문인지 종종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참가자분의 소감으로 “신사가 일본인의 생활에 녹아들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사 안에서 본 풍경이나 설명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는, 이 소감을 밝힌 본인이 ‘신사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라는 점을 생각할 때 매우 유연하고, 긍정적이고 인간으로서의 그릇의 넓이를 가능케 하는 훌륭한 자세입니다. 앞으로도 그 자세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류회에 참가한 대학생 방한단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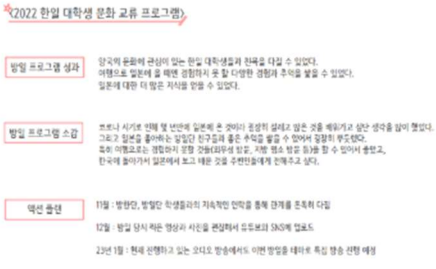
온라인에서 교류하던 멤버들과 실제로 만났을 때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코로나 속 한일 교류는 저희 관계를 더욱 더 가깝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생 친구를 사귄 수 있었던 방일단, 방한단의 교류를 통해서 인적 교류의 중요성, 특히 직접 만나서 하는 대화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제 자신이 한일 간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지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6. 참가자의 대외 발신

 교류했던 일본 방한단 학생 소조가 상암남에서 완공되고 경치를 찍으셨다. 일본 특유의 저서(저서)나-하는 계절 날씨부터 고지에서 향하는 근원과 큰거리의 역사(역사)를 우리 세대에 전해주고 싶으셨다는 말이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연스타(연)도 즐겁지만 한일관계에 대해서, 한일 가까운 나라라고 해도 "같이" 할 때의 편견(편견)을 무너뜨리기 위해, 처음으로 "자신"을 경험으로 공통점을 깨닫게 될까봐 걱정(걱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날은 한일관계는 "일(일)대(대)일(일)대"로 할 수 없으니 여(여)를 세상(세상)과(과)에게(에게) 지(지)를 줄지 않(않)고(고) 해(해)결(결)할(할) 방법(방법)을 찾(찾)아(아)야(야) 할(할) 것(것) 같(같)다. 최(최)후(후)에(에)는(는) 저(저)의(의) 서(서)로(로)도(도) 할(할) 수(수) 없(없)기(기)에(에)는(는) 결(결)코(코)나(나)는(는) 한국(한국) 제(제)교(교)류(류) 동(동)시(시)로(로) 제(제)교(교)류(류)에도(도)는(는) 한(한)가(가) 없(없)는(는) 한국(한국) 제(제)교(교)류(류)보다는(는) 온(온) 세(세)상에(에) 조금(조금) 더(더) 잘(잘)한(한) 것(것) 같(같)은(은) 것(것) 같(같)다.	 정말 재미있었다는 남(남)북(북) 이(이)산(산)가(가)속(속) 상(상)행(행)이(이) 있(있)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못(못) 봐(봐)도 우리(우리)의(의) 우(우)정(정)과(과) 서로(서로)를(를) 위한(을) 마음(마음)은(은) 변(변)치(치) 않(않)고(고) 꼭(꼭) 지(지)속(속)될(될) 것(것) 이(이) 라고, 오늘(오늘) 중(중) 단(단) 한(한) 순(순)간(간)도(도) 느끼(느끼)지(지) 않(않)은(은) 순간(순간)이(이) 없(없)었다. 우리(우리)와(와) 같(같)은(은) 젊(젊)은(은)이(이)들이(들) 앞으로(앞으로) 열(열)심(심)히(히) 사(사)회(회)에서(에서) 살(살)아(아)간(간)다(다)면(면), 한(한)일(일)관(관)계(계)의(의) 미(미)래(래) 역시(역시) 밝(밝)지(지) 않(않)을(을) 것(것) 이(이)다. 공식(공식)일(일)정(정)은(은) 7(7)일(일)까(까)라(라)지(지)만(만), 아(아)침(침) 8(8)시(시) 30(30)분(분) 비(비)행(행)기(기)에서(에서) 사(사)실(실)상(상) 오(오)늘(날)이(이) 마(마)지(지)막(막) 일(일)정(정)이(이)었다. 한(한)일(일)대(대)학(학)생(생)교(교)류(류)를(를) 하(하)면(면)서(서) 느(느)낀(낀) 점(점)은(은), 방(방)한(한)단(단)을(를) 역(역)시(시) 일(일)본(본)의(의) 젊(젊)은(은)이(이)가(가) 전(전)혀(혀) 그(그)까(까) 젊(젊)은(은)이(이)라는(는) 점(점)이(이)었다. 일(일)차(차)를(를) 포(포)함(함)해(해) 많(많)은(은) 사(사)람(람)들이(들) "일(일)본(본) 사(사)람(람)들(들)은(은) 이(이)렇(렇)다", "한(한)국(국) 사(사)람(람)들(들)은(은) 저(저)렇(렇)다", "상(상)대(대)국(국) 젊(젊)은(은)이(이)들을(들) 알(알)고(고) 싶(싶)다" 라는(는) 식(식)으로(로) 국(국)가(가)라(라)는(는) 커(커)테(테)그(그)리(리)로(로) 외(외)국(국)인(인)을(를) 배(배)려(려)보(보)고(고) 있(있)다.
예방에 대한 포스팅 한일관계에 대해서 워낙 가까운 나라라고 해도 “같다”를 전제로 다름을 부각시키지 말고, 처음부터 “다르다”를 기본으로 공통점을 하나씩 찾으면 훨씬 친밀감을 느낄 수 있으며, 미래를 이끌 MZ 세대에게 기대를 품게 된다고 하였던 말씀이 인상 깊었다.	그룹별 프로젝트 참가에 대한 포스팅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못 봐도 우리의 우정과 서로를 위한 마음은 변치 않고 꼭 지속될 것이라고, 오늘 중 단 한 순간도 느끼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우리와 같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열심히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한일관계의 미래 역시 밝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Q V 7/10 CMYB 1: 방일단 2022 부외무성 #한국문화인 #오디오에 잘 집중했던 날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나의 상상 이상으로 많이 계시다고 피부로 느꼈던, 그리고 나 역시 그 중 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절실히 생각했던 날이었다. 관광으로 느끼지 못한 감동적인 경험이 있었다.	 ♡ Q V << D13 >> 미치타카 노리타카・타쿠미 형제 카운터에 다녀왔습니다. 조선 중기였던 16세기의 일본인 형제 덕분에 지킴이 수 있는 유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도자기를 연구하셨다는 게 믿을 수 없습니다. 다들 카운터에 입찰 리미트에 따라 선택을 했습니다. 일본 특산물도 볼 수 있어 좋고, 자기장도 아름답습니다.
예방에 대한 포스팅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나의 상상 이상으로 많이 계시다고 피부로 느꼈던, 그리고 나 역시 그 중 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절실히 생각했던 날이었다. 관광으로 느끼지 못한 감동적인 경험이 있었다.	아사카와노리타카・타쿠미 형제 자료관에 대한 포스팅 조선을 사랑한 두 명의 일본인 형제 덕분에 지켜질 수 있었던 우리나라 도자기를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전국을 다니며 조선의 도자기를 연구하셨다는 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7. 보고회에서의 귀국 후 액션플랜 발표

 2022 한일 대학생 문화 교류 프로그램 방일 프로그램 성과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한일 대학생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 이행으로 일본에 갈 계획 중이던 학생과 우정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일본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방일 프로그램 소감 코로나 시기로 인해 몇 년째 일본에 갈 계획이 없었던 것을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뻐했다. 그리고 일본을 돌아보는 일주일간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일본 대학교도 방문하고 일본 문화에 대해 알게 되어 매우 좋았다. 한국에 돌아와서 일본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액션 플랜 1월 : 방한단, 방일단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다짐. 12월 : 방일 당시 찍은 영상과 사진을 편집해서 유튜브와 SNS에 업로드. 23년 1월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오디오 방송에서 이번 방일단 테마로 특집 방송 진행.	 JENESYS 2022 한국대학생 방일단 목적 -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 방일단 학생들의 일본 문화 이해 증진 - 방일단 학생들의 일본 문화 이해 증진 효과 - 방일단 학생들의 일본 문화 이해 증진 - 방일단 학생들의 일본 문화 이해 증진 방일단 2022 - 방일단 학생들의 일본 문화 이해 증진 - 방일단 학생들의 일본 문화 이해 증진
액션플랜의 발표 1 -방한단, 방일단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다짐. -방일당시에 찍은 영상과 사진을 편집해서 유튜브와 SNS 업로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오디오 방송에서 이번 방일단 테마로 특집 방송 진행.	액션플랜의 발표 2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에 이번에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포스팅. -아이들 앞에서 특강 형식으로 한국과 일본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소개. -한달 정도 일본에 살아보면서 이번 기회로 알게 된 내용을 자세하게 학습하고, 부족한 일본어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